

<2014년 2월 5일 수요말씀>

첫사랑을 잃으면, 사랑하는 자를 뺏긴다

본 문 요한계시록 2장 2-4절 (4절 핵심)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주일말씀의 핵심을 <잠언>으로 전해 주면서, 주일말씀에서 못 다 한 말씀을 <잠언>으로 더 전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 사랑의 해>에 ‘성자 사랑’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성자께서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첫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 ‘사랑하는 성자’를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1.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뺏긴다.
2.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면, 뺏는다.

3. ‘마음’ 으로 뺏고, ‘행실’ 로 뺏는 것이다.

4. 어떤 지역을 처음 얻었을 때는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하니,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유발되어 좋아하고 사랑하며 대한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처음과 같은 ‘마음과 대함과 행함’ 이 없어지게 된다.

사람도, 어떤 물건도, 환경도 그러하다.

5. 사람은 더욱 ‘새것’ 을 찾고 원하고 느끼려 한다. 고로 ‘처음 것’ 만 보고 사용하면, 누구나 ‘처음 마음’ 을 잃게 된다.

6.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처음 같으려면, <환경>은 연속하여 개발하고, <물건>은 연속해서 더 좋게 만들고, <사람>은 연속해서 더 좋게 변화시켜라.

7.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다. 같은 삶만 반복하면, 희망차게 살지 못한다. 고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 차원 높게 살기다. 그러면 ‘새것’ 을 얻기에 새로운 희망과 호기심이 생겨, 처음 사랑을 찾는다.

8. <종교>도 옛 역사 구시대의 삶은 반복되는 역사이므로 이미 호기심을 잃고, 새것에 대한 흥미도 잃고, 맛도 잃고, 첫사랑을 잃은 상태다.

9. ‘새 역사 발견’ 은 ‘새 세상 발견’ 이다.

10. <역사>는 기존의 세계에다 시대에 따라 ‘새 역사’ 를 받아들이면, 첫사랑을 찾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개인>도 그러하다.

11. <월명동>도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드니, 처음에 야심작을 쌓고, 운동장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었을 때처럼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모두 희망으로 오고 가면서 살아간다.
12. <시대 말씀>도 해마다 새롭다. 그러니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뇌 차원을 높이고 가치 있게 듣고 행해라. 그래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진다.
13. 때가 되면 <모든 체제>도 새롭게 하기다. 그래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진다.
14. 반복하기만 하면, ‘첫사랑의 불’이 꺼진다.
15. 장작에 불을 붙여 활활 타오르게 해도,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진다. 계속해서 새 장작을 넣어야 불이 안 꺼진다.
16. 성자에 대해서, 분체에 대해서도 자꾸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인해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진다.
17.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첫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렇지 못하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 ‘첫사랑의 불’이 꺼진다.
18. 저마다 새해에는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하고 행하여라. 그러면 첫사랑이 연속되어 희망과 기쁨의 삶이다.
19. 사람은 ‘새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그것에 정신이 빠져서 기뻐하며 밤에 잠도 안 자고 행한다. 그러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식는다.

20. ‘첫 사랑의 불’ 이 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그 사람’ 이나 ‘그 환경’ 은 그대로여도 자신의 마음이 식으니 첫사랑이 식는 것이다.

둘째, 이미 먹어 보고, 입어 보고, 사용해 보고 겪어 봤기에 첫사랑의 기쁨과 희망이 이루어졌으니 호기심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자기의 차원을 더 높이고, 영적으로 더 차원 높여 보고 대하며 사용하기다. 더 빛나게 만들기다.

21. <고향>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아도 매일 새롭게 살려면,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차원을 높여 새롭게 보고 대하라. 그러면 <고향>도 <환경>도 새것으로 보이고, <사람>도 새롭게 다시 만난 사람으로 보인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자꾸 연구하여 새것을 발견해라.

한없는 발견이다. 끝도 없는 세계다. 지구 세상의 땅속과 땅 위에는 발견할 것이 무한정하다. 다만 많은 연구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눈이 닳고 발이 닳도록 하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듯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발견할 것들이 많다.

할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청춘도 인생도 그냥 늙게 놔두고 있다. 너무 아깝다. 섭리사에는 할 일이 많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매일 일꾼을 찾는다. 제발 만들어 놓아라. 합당하면 쓴다.

22. 네 삶이 지겨우냐? 왜 그런지 한 번 생각해 보아라.

23. <자기 자신>도 만들고 변화시켜야 자기에게 희망이 있고,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매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지겨운 것이다.
24. 인생 지능 차원이 낮으니, 처음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그렇게도 좋아하며 대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삶으로 인해 버리고 떠난다. 또 믿고 살아도 보통으로 믿고 산다.
25. 사람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대하다가 계속 겪어 보면서 같이 살다 보니 ‘별것 아니네.’ 하며, 마음이 식은 채로 대한다.
26. 하나님은 상상도 못 하게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지구 세상에는 환경과 물건과 사람들이 수십억 배 이상 많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매일 새것을 구하고 찾아라. 안 구하고 안 찾으면, 자기 당세에는 못 쓰고 실망 속에 재미없게 지겹게 살다가 끝난다.
27. ‘성자의 새것’을 발견해야 ‘세상의 새것’도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신다.
28. 지구 세상 사람들은 70억 명으로 정말 많다. 물건도 수백만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가진 것만 가지고 살면, 그것만 계속 쓰고 살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 맥이 풀려서 재미없이 살게 된다.
29. 현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발달시키며 살듯, ‘자기 신앙’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발달시키며 살아야 살맛을 느끼고 산다.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놀지 말고 찾아라. 성자와 함께 행해라.

30.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매일 기뻐하며 산다.

31. 성자를 발견하고도 처음에만 좋아하다가 만다.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다.

32. 주를 발견하고도 처음에만 희망에 차서 좋아하다가 뇌가 굳어서 첫사랑이 식어 간다. 지능이 땅바닥을 면치 못한 자들이다. 주는 그런 자들과 함께 전능자의 일을 못 하니, 새로운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일을 희망차게 해 나간다. 섭리 안에서도 차원 높은 자만 알고, 주와 함께 행한다.

33. 귀신도 사탄도 모르게 하자.

34. 아는 자만 기뻐하며 희망으로 살고, 첫사랑에 불이 붙어서 산다.

35. 모르는 자, 차원 낮은 자는 매일 지겹게 반복되는 삶을 산다.

36. 시대도 ‘새 시대’가 왔고, 사람도 ‘새 사람’이 왔다. 그러나 옛 마음, 옛 생각, 옛 행실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미 다 쓰고 묵어서 버린 시대는 썩어 오물장이 되어 날파리가 득실댄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지루하고 지겨운 삶을 벗어나, 희망차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할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머리에, 가슴에 확~~!! 박혀 말씀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게 외치면서, 양손 기본 제스처)

* 사랑하니, 계속해서 사랑의 표로 <말씀>을 주면서 ‘사랑과 희망과 기쁨의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전환>

37. 보물이 아니면, 보물을 만들어라.

38. 땅을 파고 고르고 하여 평지가 되게 개발하면, 보물이 된다.

39. 험한 산도 가꾸고, 꽃을 심고, 별장을 지으니 ‘보물 산’이 되었다.

40. 절대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사랑’이 완성된다.

41. 개인도 섭리도 ‘사랑 완성’이 <목적>이다.

42. 우리가 사랑을 완성시키지 않고, 성자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본체의 무한한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없다.

43. 과일도 익어 완성된 것만 주인이 만족하여 취하고 기뻐한다.

44. ‘사랑’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이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이다.

45. 사람이든 신이든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는 목적한 것의 ‘다음 것’을 행하기 시작한다.

46. 남녀가 연애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다음에는 예비한 별천지 환경에 가서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

자도 그러하시다.

47.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다. 수고하여 열매가 열리고 자라고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따 먹고, 수십 가지로 가공해서 먹고 즐기고, 그 열매로 돈도 벌고 누린다.
48.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키우는 목적은 ‘사랑’이다. ‘인간의 육과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인간이 사랑을 완성시키고 휴거되면, 그때부터는 천국에서 수천 가지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49. 농부가 농사짓는 목적은 ‘쌀과 곡식을 얻기 위함’이다. 농부가 수고하여 곡식을 얻으면, 그때부터 수십 가지로 쓰며 즐거워하며 산다.
50. 인생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수백 가지를 행하면서 누리며 살게 된다.
51. 완성해라! 그래야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상(理想)을 위해 살게 된다.
52. 월명동에 <성자 사랑의 집>을 완성하니, 수십 가지로 기뻐하며 희망차게 쓴다.
53. 월명동을 완성하니, 수십만 명씩 청중 구름이 오고 가며 개성대로 기뻐하며 쓰고 누린다.
54. 저마다 ‘시간 쓰는 것’을 완성해라. 새벽 시간, 예배 시간 등이다. 그 시간을 완성시키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달리 대

하신다.

55. 게으른 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빛으로 150억 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를 매일 오고 가신다. 휴거도 제대로 안 된 자들이 편히 살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를 드린다. ‘안일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매일 점점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

56. 자기중심으로 계산하면, 딴 세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환, 잠시 쉬었다가>

57. <대상>은 <주체>와 같이 귀하다.

58. <주체>는 <대상>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긴다. 이는 그 대상으로 인해 주체가 더욱 빛나고, 더욱 기쁘고, 희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59. 대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체의 삶이 이루어진다. 고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삶이 된다.

6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산다면, ‘물질’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육적 사랑’을 해도 뇌 차원이 낮아서 낮은 차원의 사랑밖에 못 누린다.

6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이 완성되면, 영적 혼적 차원에서 사랑하니, ‘물질 사랑’도, ‘만물 사랑’도, ‘인간 사랑’도 최고 차원에서 느끼고 보게 된다. 고로 뇌가 첫사랑의 차원에서 희열을 느끼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62. 사랑을 완성하지 못해서 뇌 차원이 낮은 자는 황금빛 찬란한 <천국 황금성>에 가도 뇌 차원대로만 느끼고 “별것 아니네.” 한다. 빛만 보고서 “하나의 환한 세계네.” 한다.
63. 시력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만물을 봐도 “우리 고향과 비슷하네.” 한다. 개 눈에는 개들만 보이고, 개 밥통만 보인다.
64. 이와 같이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여 뇌 차원이 낮은 자는 <성경>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생명의 길’로 보이지 않는다.
65. ‘마음의 강도’가 높은 사람은 같은 것을 봐도 심장이 뛰고 놀라서 가슴이 뻐근하여 결국 주저앉고 땅을 치며 감탄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찾고, 우러러보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66.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1분 동안만 거둔다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살아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이 평생 태양을 거저 주셔도 창조자를 사랑하지 않고, 창조자에게 감사하지 않고, 한 번도 영광 돌리지 않고 살다가 죽는다.
- 그러니 그 육의 행실대로 그 혼과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67. 태양과 공기가 순간만 없어도 인간은 순간 쪽쪽 뻘어 겨울철 동태같이 된다.

<전환>

*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같은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양손 기본 제스처) 마치 어떤 것을 집중하여 주시하듯, 마음의 강도를 높여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성자의 말씀에는 성자와 같은 ‘힘과 능력’ 이 있으니, 듣기만 잘 들으면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한 손 기본 제스처)

68. 주 안에서 행해라. 이것이 확실한 희망이니, 의심 말고 해라.

69. 얼마든지 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해라.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고 ‘곡식이 안 날까. 과일이 안 열릴까.’ 아예 생각하지 말고 의심 말고 열심히 해라.

70. 만일 곡식도 열매도 안 열렸다 하자.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가꾸면서 기술을 배웠으니, 그것이 ‘자본’ 이 된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게 해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는다. 그러면 이전에 실패했어도 손해가 없는 것이다.

71. 끝까지 하면, 사탄도 세상도 다 이긴다. ‘예정’ 이다. ‘하나님의 계획’ 이다. 반드시 <영원한 것>이 승리한다. 그러니 끝까지 해라.

72. 사탄도 악인들도 끝까지 못 한다. 이는 예정되어 있다. 고로 의인들아! 끝까지 하여 얻어라.

73. (*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홀로 남을 때까지 걷고 뛰어라. 그때 하나님도 성자도 주도 은밀히 나타나 “됐다. 이제 나와 같이 걷자.” 하며 앞서 가신다. 그때 마음이 있으면, 동행하여라. <끝>

74. 1:1 노정의 삶이다.

75. “외롭다. 쓸쓸하다. 적적하다. 왕따다.” 하지 말고, 전능자와 성자를 찾아라. 그러면 합당하니, 부담 없이 속히 오신다.

76. 너 먼저 살아라. 그러면 네 주위의 것도 네 것이 되어서 다 얻고 살게 된다.

77. 분별없이 ‘우선 먹고 보자. 우선 하고 보자.’ 하는 삶은 ‘우선 죽고 보자는 미련한 삶이다.

78. 신은 아주 가까이 있기에 안 보인다.

79. 신은 아주 가까이 있기에 ‘눈’ 으로는 안 보이니, ‘마음’ 으로 느껴 보아라.

80. 밭에 감춰진 보화도 아주 가까이 있기에 밟고 다녀도 몰랐다. 결국 ‘마음’ 으로 느껴 보고 캐냈다. 너무 커서 현대 장비로도 들 수가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놓고 1차로 인생 평생 보기로 했고, 2차로 1000년 동안 영으로 보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환, 잠시 쉬었다가>

* 계속해서 앞의 내용과 이어서 말씀해 주면서, 오늘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81. <보화>란 무엇이나. 저마다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

고 바라던 것이다.

82. 황금과 다이아몬드만 보화냐. 그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자기에게 보화다.
83. 농부에게 금반지와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것을 다 팔아서 ‘땅’ 을 산다. 농부에게는 ‘땅이 가장 큰 보화’ 이기 때문이다. 땅이 있어야 곡식을 심어 자기 기술을 쓰고, 결실한 것을 가지고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기 때문이다.
84.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이 <보화>다.
85. 좋은 환경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을 찾는 것’ 이 <보화>이고, 애인을 찾는 사람에게는 ‘애인을 찾는 것’ 이 <보화>다. 고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판다.
86. 자기 ‘혼과 영’ 은 구원을 이루어 영원히 살려고 <구원자>를 찾는다. 그러나 ‘육’ 을 통해 찾아야 되니, 애를 태우면서 심정 답답해한다. ‘혼과 영’ 은 <구원자>를 찾았어도 ‘자기 육신’ 에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육’ 이 행해 주지 않으니 ‘혼과 영’ 이 곤고하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고로 심령의 낙이 없다.
87. 농부에게는 ‘농사지을 땅’ 이 <보화>이니, 온갖 것을 다 팔아서 땅을 사고 기뻐하며 좋아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하고 “미친 사람 아니야? 나 같으면 땅 팔아서 집 짓고 살겠다.” 했다. 농부는 집도 없이 작은 움막에서 살지만,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 을 <보화>로 여기고 만족하며 살았다.

88. ‘자기 만족, 자기 보화’ 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금반지와 다이아 반지를 해 주었는데, 그 날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원했던 옷을 샀다. 그 사람에게서는 ‘옷’ 이 <보화>였다.
89. <영원한 보화>는 오직 ‘주’ 다. 고로 절대 팔지 말고, 버리지 말고, 평생 영원히 같이 살아라.
90. <시대의 가장 큰 보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조각하여 만든 보화>는 누구나 좋아하는 보화로 여기고 기뻐하며 대할 것이다.
91. 처음에는 <보화>로 여기고 좋아하고 귀히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으로 여긴다. 이 원인은 뇌 차원이 떨어지니 ‘호기심’ 도 떨어져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시대가 갔기에 그러하다.
9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주신 보화는 시대가 갈수록 태양같이 빛이 난다.
93. 자기만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지점에 다르면 좋아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은 자만 알고 기뻐한다. 지금 이 시대 <휴거의 때>도 보화로 아는 자만 알고 기뻐한다.
94. 아주머니들이 같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소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중의 한 아주머니가 유독 관심을 갖고 그 소녀를 쳐다봤고, 그 소녀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도 사 주었다.

이를 보고 다른 아주머니들이 “야. 왜 아무한테나 그렇게 대접을 해 줘? 성격이 참 특이하다.” 했다.

그 아주머니의 마음과 생각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지혜다.

그 소녀는 아주머니의 가장 큰 보화인 ‘딸’ 이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것이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95. 아는 자만 <보화>를 찾는다.

96. 똑같이 산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먹을 열매를 찾고, 어떤 사람은 못 찾는다.

97. 작가에게는 ‘작품’ 이 <보화>다.

98.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 이 <보화>다.

* 마지막 잠언입니다.

99. 입이 찢어지게 신을 부르지 말고, 애간장이 타도록 신을 사랑해라. 그러면 대답하신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주신다. (양손 기본 제스처)